한 영혼을 향한 장인정신, 질적으로 탄탄한 교회를 만든다

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 교회 자체 건물도 없는 상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20, 30명씩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온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화은교회는 올해로 개척 10년을 맞았다. 신도시 거주민들의 혀끝은 너무나도 예민해서 수많은 식당들이 먹자골목에 모여 있어도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선택받는 식당은 몇 안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혈연, 지연 등의 인간관계로 얽혀 있는 지역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일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영적 감각에 따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줄 교회와 목회자들을 분별해 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새롭게 개척한 교회의 경우, 그 교회와 목회자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데 경쟁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교회의 존립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마다 수많은 신도시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희진 목사

- 칼빈대학교와 총신대 신대원 졸업
-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교에서 문학사
-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 2005년 덕양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고양시 경목위원
- 현 화은교회 담임목사

화은교회는 지난 10년간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그야말로 생존의 수준을 넘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아직 드러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완곡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개척 10주년 기념예배를 앞둔 화은교회의 담임 정희진 목사를 만났다.

생명력 있는 목회 대안은 제자훈련이다

화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희진 목사는 1995년 말 송구영신예배를 아파트에서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 몇 개월 전 아현동에 있는 한 교회(그 당시 150명 정도 모이는 규모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다. 앞으로의 목회비전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근간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장로들이 모두 다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정 목사는 기존 교회보다는 개척하는 것이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데 지름길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단지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화정지구로 이사했다.

그가 이처럼 교회의 상황에 목회철학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철학에 맞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개척 이전의 사역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도사 시절 조이선교회 직장인 제자반을 수료하고, 리더와 강사로 섬기면서 총 14년간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현장에서 호흡했던 것이다. 또한 제17기 CAL세미나를 수료하고 지역 교회 내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해본 결과,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이 훈련 유무에 따라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앞으로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하는 길은 오로지 제자훈련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더디 가더라도 확실한 길을 선택하라

양적 성장을 붙잡을 것인가? 질적 성장을 붙잡을 것인가? 이 문제는 현실 목회자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지만, 현실적인 교회의 상황과 여건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목회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급한 마음에 질적 성장을 유보하면서까지 양적 성장을 붙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공격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정희진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확립하고 제자훈련의 방법론을 터득한 이후, 더디 가더라도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실 56평 상가교회를 담임한 정 목사에게 있어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붙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좁은 성전과 열악한 교회학교 현실을 자산으로 경쟁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맛깔스런 양질의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화은교회를 선택하고 영적인 둥지로 삼은 성도들은 모두 화은교회와 정희진 목사가 가진 질적인 탁월성에 매료되어, 그 성장과 성숙을 향해 헌신한 성도들이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화은교회를 다녀갔다.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개척교회는 좀 …." 화은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보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늘어놓으며 교회등록을 거부한 많은 새가족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은교회와 정희진 목사가

정희진 목사는 더디 가더라도 확실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열악한 교회 환경을 자산으로 경쟁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맛깔스런 양질의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가진 질적인 탁월성에 매료된 성도들이 1년에 20, 30명씩 화은교회의 새 식구가 되었다.

가까운 큰 교회에 다니다 화은교회로 오게 된 조준연 집사는 "가정교회 소그룹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라고 고백한다.

올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전원석 집사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근 25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과정 한 번 없이 교회를 출입해온 것이 심히 부끄럽고, 늦은 것 같지만 지금 이 과정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반 수료예배 때 멋지게 성경 암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말로 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2년 전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 속에 치유된 경험을 한 이주혁, 정임희 집사 부부는 2003년 대전에서 화정으로 이사를 왔다. 주변의 큰 교회들을 두루 다녔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던 중 큰 아들 지환이가 가까운 교회의 유치부에서 인형극을 한다는 전도엽서를 받아들고 인형극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 작은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예배 중 찬양이 좋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분위기가 좋았단다.

2006년 6월 현재 화은교회 일대일 양육반은 총 178명이 수료했다. 제자훈련은 1996년부터 10기에 걸쳐 총 63명이 수료했으며, 올해 11기는 20명이 훈련 중이다. 사역훈련은 2000, 2002, 2004, 2005년에 총 4기로 27명이 수료했다.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은 22개의 가정교회를 담당하며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정희진 목사를 통해 참된 영적 양식을 맛보고, 훈련의 맛을 본 성도들은 화은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헌신된 일꾼이 되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를 멀리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화은교회에 계속 출석한다. 그만큼 화은교회와 정희진 목사가 보여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양 마인드를 가져라

정 목사는 개척초기부터 7시, 11시 2부 예배를 드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주일 2부 예배 시스템은 교회가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장년예배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면서 9시, 11시의 2부 예배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7시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나가야 하는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자 정 목사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3, 4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7시 예배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7시, 9시, 11시 3부 예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목회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 낭비일 수 있지만, 정 목사는 한 영혼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기로 했다.

올해 제자반은 남자 1개 반, 여자 3개 반이 운영중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작년에도 시간이 맞지 않아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원 강사인 성도 한 명을 위해 올해 1인 제자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자 성도들과 여 성도를 함께 훈련시킬 수도 없고, 훈련시간에는 학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이다. 1년간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는 한 성도를 위해 올해는 1인 제자반을 만들어 정 목사가 헌신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목회자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목회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정 목사가 한 영혼을 향한 목양적 마음으로 충만한 목회자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나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 목사의 이런 원칙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자훈련 인도자는 장인정신으로 길러야 한다

과거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옛 도공들은 오랜 세월의 도제제도를 통해 장인을 길러 내었다. 그만큼 혼을 담았고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을 후손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영혼을 만지는 제자훈련 사역도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성령의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꾼이 필수요소이다. 그만큼 제자훈련 인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해온 대형교회의 경우, 이미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어 있어 훈련에 지원하는 성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온다. 따라서 제자훈련 인도자가 조금 부족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통해 보완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분위기를 흐리면 곧바로 그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희진 목사는 스스로가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의 부교역자 생활을 통해 제자훈련의 위력을 경험했고, 제자훈련 인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장인의 길임을 알았기에 준비되지 않은 부교역자들을 제자훈련 인도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거의 손수 제자들을 양육, 훈련해 왔다. 다음은 정 목사의 말이다.

"교역자가 오면 1년은 무조건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합니다. 봄에는 두란노의 일대일 과정을 배우게 하고, 가을부터 실습을 겸해서 현장을 맡깁니다. 2년차 되는 가을에 CAL세미나를 보내고, 3년차 되는 해부터 제자반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본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전통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제자훈련 목회 쪽으로 이끌다보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부교역자들의 경우 철저한 멘토링을 통해서 질적인 수준이 담보된 제자훈련 인도자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 이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담임목사인 정 목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누구나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제자훈련 인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바쁜 목회현장 가운데서 적용, 실천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훨씬 더 많은 사역의 짐을 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실제로 정희진 목사는 올해도 사역반을 쉬면서 제자반만 3개 반(실제로는 시간이 맞지 않는 성도 1명을 개인적으로 훈련시키는 반까지 포함하면 총 4개 반)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4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겨오던 목사가 개척해 나가는 바람에, 새롭게 부임한 부교역자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 목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담임목회자의 몸부림이 좋은 교회로 소문난 오늘의 화은교회를 있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선순위 정해 사역의 활용도를 높인다

부교역자들이 제자훈련을 이해할 때까지는 평신도 훈련과

"일찍부터 건물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도 저축하고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계속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재교육 문제는 담임목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담임목사는 늘 시간에 쫓기게 된다.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이런 시간의 부족을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목회 자료들을 활용해 극복해가고 있다.

가정교회 가장들과 총무들을 재교육하거나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매주 시간을 투자해 풍성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이 현장 목회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이 매주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목회정보(리더십네트워크, 소그룹네트워크, 제자훈련네트워크)를 주제별로 잘 분류해 두었다가 가장, 총무들의 재교육과 제자훈련 때 양질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매주 보내는 정보를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훈련받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훈련과 사역, 둘 다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훈련생을 배출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훈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목회철학과 원리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움직여져야만 한다. 훈련시간에는 성경적 가치관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는 양적 성장이나 수적 부흥만을 너무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목회자들의 태도는 훈련받은 평신도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훈련된 평신도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 배우고 정립한 바른 성경적 원리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 사역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화은교회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은 바로 그런 질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역으로 충만한 기간이었다.

화은교회는 교회설립 8주년이 되었을 때, 자기 교회건물도 아직 건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21평짜리 아파트를 선교사들을 위한 미션홈으로 준비했다. 교회의 후원 선교사들과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잠시 귀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정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제자훈련 목회가 낳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생각하는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미션홈을 마련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션홈을 드린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이 미션홈이 비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미션홈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자기 교회 건물도 가지지 못한 교회가 미션홈을 준비한 것에 놀라며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단다.

또한 10주년을 기점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1년 반을 앞당겨 교회설립 8년 반 만에 파키스탄에 오창균, 조수아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다. 화은교회의 사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4월 22일에는 화은교회에서 4년간 섬겼던 조희진 목사가 신실한교회를 개척하자 임대료 일부와 예배당 집기류를 교회에서 전적으로 협력하고, 3년간 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정 목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선정해 생활비를 2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업도 전개했다.

"일찍부터 건물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도 저축하고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된 사역의 질적 수준은 평신도 동역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정 목사의 아들 또한 목회자로 헌신해 신학교에 진학하게 만든 큰 디딤돌이 되었다. 정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10년간 교회를 개척해 섬기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결정을 내려주어서 마음 한구석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쉽지 않은 목회 길을 걸어가신 아버님을 곁에서 뵈었기에 그 아들의 마음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영적 동역자들과 교제를 통해 탈진을 막아라

정 목사는 지난 10년간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탁월한 평신도 동역자를 키워낸 '은둔의 사역자(?)' 였다. 우물물을 끊임없이 퍼내다보면 어느 순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 목사에게도 몇 차례의 영적 위기가 있었다. 어느 해에는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힘들기도 했다. 제자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소문이 났던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영성관리가 잘 안되고, 일탈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때도 있었다. 지난 10년, 그에게도 쏟아 내어도 쏟아 내어도 늘 요구받는 영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늘 짐이 되었다. 이런 어려움과 영적 슬럼프를 만났을 때,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정 목사는 혼자만 토굴을 파고 지내지는 않았다. 화은교회의 주변에 교단과 교파를 달리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친구처럼 지내며, '새로운 교회연합' (이하 새교연)이라는 이름으로 동역을 시작했던 것이다. 제직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든지, 1년에 두 차례 연합체육대회를 갖고, 매년 9월에는 찬양제를 열었다. 올해 3월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인 박용규 교수를 모시고 '평양대부흥운동 특강' 을 듣기도 했다. 정 목사는 이 새교연 교역자들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새교연 교역자들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는 기도원에 함께 올라가 2박 3일을 같이 보내며 신년 목회계획을 나눕니다. 여름에는 3박 4일로 목회자 부부가 수련회 다녀오기도 하지요. 허물 없이 지내는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라 저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10년을 내다보며

정 목사는 올해 48세이다. 앞으로 자연수명을 고려할 경우, 20년 이상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앞으로 달려갈 20년은 분명 지나온 10년과는 다를 것이다. 화은교회는 지난 10년간 열악한 환경의 상가교회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되어 정 목사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질적으로 탁월한 평신도 동역자들도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영적 에너지를 모아

폭발적인 성장과 비약적인 사역의 확장을 경험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화은교회는 6월 11일 교회설립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확립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그것이다. 2,000명의 평신도 동역자,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비전도 세웠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행신 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종교부지 분양에 응모할 예정이다. 정 목사는 "가진 돈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확신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화은교회에는 교회건축 문제, 앞으로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더 부각되어질 부교역자 수급문제, 쉼 없는 양육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 가는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나온 10년보다는 앞으로 달려갈 10년, 20년이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으리라는 사실이다.

비행기가 이륙해 수평고도를 유지하기까지 전체 연료의 2/3를 사용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화은교회가 제자훈련 목회로 비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가면서 영적으로 고공비행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 붙잡혀 그 푯대를 향하여 쉼 없이 날아갈 화은교회를 기대해본다.

〈박주성 목사〉